

# 20대 《국회》를 탄장판으로 만든 《미래통합당》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총선》과 함께 20대 《국회》도 어느덧 자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4년전 출발의 첫 단추를 올릴 때 민심은 그래도 《새국회》라고 무엇을 조금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전과 다를바없는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떨치었다.

##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주범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국회》가 없다.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놀고먹는 《식물국회》이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아니라 저 하나의 권력야욕만 추구하는 《동물국회》라는 것이 저물어가는 20대 《국회》에 민심이 찍는 락인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의 한 의원이 밝힌것처럼 제20대 《국회》는 150일동안 본회의를 총 506시간밖에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법안처리률도 겨우 34%로서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하기에 지난 2월 남조선의 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서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국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씩씩대로 씩씩은 정

##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한때 권력을 쥐고 《국회》다수당지위에 있을 때에는 찍하면 득판치를 하고 날치기를 하여 《국회》에서 득판치를 하여 제20대 《국회》 초기 여소야대정국이 조성되었다.

확보한 의석이 과반수에 훨씬 못미치는것으로 하여 《국회》에서 득판치를 할수 없게 된 보수세력은 어떻게 하나 《국회》에서 논란자위인 《국회》의 장과 각분야별위원장직을 비롯한 주요자리를 떠나며 저들의 정치적리욕을 차리려들었다.

이것은 그대로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을 산생시켰으며 그로 하여 20대 《국회》는 남조선의 언론들이 《20대 국회의 우울한 시작》이라고 평한것처럼 시작부터 순란치 않았다.

이후 20대 《국회》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박근혜의 거부권행사와 《로동악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획책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책동 등으로 하여 여야간의 끊임없는 정쟁속에 《식물국회》라는 락인이 찍혀왔다.

2017년 남조선에서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박근혜가 력사의 죄인으로 옥중에 갇히게 되었으며 이후의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정권》이 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한순간에 전락된 《새누리

당》이었다. 《국회》도 여대야소로 전변되었다.

이것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악정만을 일삼는 부패무능한 보수세력들에게 내려진 단호한 징벌이며 용당한 귀결이었다.

한동안 기여들어가 당의 간판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꾸어 달았으나 역적당의 본색은 추호도 달라질수 없다.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국회》를 피두성이 싸움판으로 만든것이다. 20대 《식물국회》는 《진화》하여 《동물국회》로까지 되었다.

현 집권세력을 물어메치려고 퍼를 물고 싸움질만 벌이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먹이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동물들과 하등 무엇이 다른것이 있는가.

지난해 4월의 《국회》란 동사건때에도 《자유한국당》은 주요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것을 욕탄이 되어서라도 무조건 막겠다고 고대하면서 당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관련법안들을 심의하는 《국회》회의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뿐만아니라 한야당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이리하여 《국회》일정은 마비되고 쌍방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심한 몸싸움속에 비명과 고성이가 오가고 마치와 장도리가 등장하였으며 부상자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렇게 《국회》를 정쟁을 일삼는 싸움판으로 만든 《자한당》 패거리들은 《정권심판론》을 내놓고 민생은 내팽개쳐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해괴한 추태들만 벌려놓았다.

결과 20대 《국회》는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민생과 관

련한 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일가진 사람마다 제20대 《국회》를 가리켜 민중이 요구하는 법안처리는 뒤진에 밀리고 고성과 주먹질만 오가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전쟁국회》라고 조소하였는가.

지금도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권력야망질현에 빠진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있는 《COVID-19》사태까지 정쟁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실로 《미래통합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추악한 당리당략과 권력야망질현에만 퍼눈이 되어 날뛰는 너절한 정치속물집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사회 각계에서 《20대 국회가 민의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 《민생파탄국회》로 된것이 누구때문인가.》, 《민생을 말아먹은 보수계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보수세력들은 더이상 표를 구걸할 생각을 하지 말라.》 등 분노의 목소리들이 련일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대결국회》, 《전쟁국회》로 만든 장본인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동족대결의 무대로 리용해왔다는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10여년전 《국회》에서 《대북송금특정》소송을 일으켜 력사적인 평양상봉관계자들을 잡아가두고 지어 죽음에도 몰이간 당시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의 망동은 오늘날도 겨례의 기억에 생생하다.

리명박보수 《정권》시기에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보수적패거리들은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덮어놓고 단정하면서 범죄적인 《5.24조치》를 극구 찬양해나왔으며 《대북규탄결의안》이라

는 비난과 규탄을 면할수 없었다.

《20대 《국회》의 참혹상을 너무도 속속들이 들여다보아온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민의를 반영해줄 새로운 《국회》의 출현을 바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를 깨개 망친 《미래통합당》은 별의별 귀찮은 《공약》들을 늘어놓고 민심을 기만하여 《국회》를 다시금 저들의 통각물로 삼으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그러나 민심의 눈은 속일수 없는 법이다. 분노한 민심은 보수패당을 심판할 의지로 충만되어있다.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세력은 온 겨레가 반대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하게 그 만을 대신 그 무슨 《COVID-19》 사태에 빚대어 《연기》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전염병사태가 완화되면 다시 강행하겠다는 소리를 내었다.

이러한 책동이 공화국에 대한 기습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발적인 소동이며 위험한 불장난이라는것을 모를 사람은 없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군사적대결소동은 비단 오늘에 와서 벌어진것이 아니다. 겨례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소동을 해를 이어가며 계속해오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외세의 전쟁책동에 추종하여 각

종 명목의 크고작은 전쟁연습들을 그칠새없이 강행하였다.

《훈련은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련합훈련을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론의 눈길을 피해 뒤구석에서 벌려놓은 전쟁연습은 또 얼마나 많은가. 언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에 미국과 남조선이 벌린 련합훈련은 100차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군부는 《2019년 국방부업무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무력증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체계를 끌어들이는 한편 잠수함성능개량과 경항공모함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 제작, 작곡 개발하는 등 북침전쟁준비에 광란적으로 매달렸다.

남조선군부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밑에 지난해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였던 2018년보다 8.2% 늘인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지향과 남원에 역행하여 전쟁화약내를 피우고 변함없는 대결방기를 부러온것은 다음아닌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의 원칙에서 공화국의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군사훈련에 대해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조선적행위》, 《즉각 중단》이니 하는것은 제가 한 범죄행위는 감추고 남을 걸고드는것과 같은 파렴치하고 터무니없는 꾀이며 민족의 존엄과 안명이 누구에 의해 지켜지는지도 모르는 정치속물들의 가련한 추태에 불과하다.

남을 걸고들기 전에 자기 행동부터 돌아쳐보아야 한다.

민족의 평화지향에 누가 지금도 었서나가고있는지, 도발적인 행위는 과연 누가 하고있는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가 그것을 판별해보고 있다.

최성일

최근 남조선의 《미래통합당》 패거리들이 《나도 당했다.》며 아우성치고있다.

얼마전 《미래통합당》의 전 원내대표 리경원은 시민, 학생단체성원들이 자기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피로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시민, 학생단체성원들이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기앞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없다.》, 《도로박근혜 적폐세력 퇴출!》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니 무서울만도 하다.

리경원은 《국회》의원 행세를 하며 저지른 행적은 친일매국형적으로 일

관되어있다. 지난해도 그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한당》 패거리들을 함께 합마와 쇠스랑을 쥐여주며 싸움으로 내몰아 《국회》를 《폭력국회》로 만들었고 《해방후 반민투위로 죽민이 분렬하

었다.》는 등의 망언들만 쏟아낸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리완용의 환생》, 《라베》(라경원과 아베의 합성어), 《토착왜구》라는 지탄을 받았다.

그런 그가 또다시 《국

## 《나도 당했다》

은 《국부력》을 약화시켰다는 소리가 갈다고 췌쳐낸 이전 서울시장 오세훈, 2012년 《대선》때 《박근혜대통령만들기》에 앞장섰던 김진래를 비롯하여 《미래통합당》의 많은 후보들이 인민들로부터 락선

## 다시금 드러난 《동맹》의 실체

얼마전 미국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에게 섬겨바칠 자금규모를 확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회의가 벌어졌다고 한다.

회의에서 남조선측은 방위비분담금증액비율을 그동안 주장해왔던 4%로부터 10%로까지 올리겠다고 예결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무려 40억 US\$를 내라고 강박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산 무기구매를 통한 간접적인 기여방안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을 저들이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각서를 체결하자라는 남조선측의 《절충안》도 단마디로 거절해치워 메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오란하게 치장해온 《한미동맹》이라는것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원래 미국은 남조선을 언제 한번 평등한 《동맹자》,

《우방》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저들의 침략목적과 탐욕적리욕을 위한 한갓 수탈의 대상, 아무렇게나 부러먹어도 될 하수인으로 볼뿐이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늘일것을 강박하며 그것을 눈덩이질러듯 불기어온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실 남조선주둔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유지비를 다 쓰지도 못하고있다. 해마다 소그 남는 막대한 자금을 은행들에 저금해놓고 불법적인 리자소득을 위한 밀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폭로한데 의하더라도 미군이 방위비분담금만 가지고 받아먹는 리자가 2002년부터 계산해도 남조선돈으로 수천억원에 훨씬 넘는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나면 가득이나 심각한 남조선경제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횡포하고 오만무례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 남조선당국은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굴종의 저자세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에는 《협상》이라는것이 말뿐이고 일방적인 요구와 그에 무력대고 아부하는 굴종만이 지배할뿐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예측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처지에서 아무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줄소지라도 예결할들 아무 소용도 없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면서 미국의 오만한 행위에 결연히 항거해나서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 《방위비분담금 주지 말고 미군기지일대로 받아내라!》, 《혈세강탈에 혈안된

미군 나가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온 남조선에 울려치고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있다.》, 《우리모두는 끝까지 출근투쟁을 이어갈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도 《《동맹자》가 아니라 수탈자이다.》, 《방위비분담금 주지 말고 미군기지일대로 받아내라!》, 《혈세강탈에 혈안된 미군 나가라!》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세계를 이어 지속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 사대와 굴종속에 자주와 존엄,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 《〈동맹자〉가 아니라 수탈자이다》

남조선 각계가 규탄하고있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으로 동조함》은 3월 20일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오만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무급휴직조치는 수만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것이다.》,



##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적폐세력심판을 호소

민의를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적폐정당을 해산할때 대한 초법민중의 명령이 집

행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를 위해 28일 인터넷을 통한 공동행동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나도 당했다》는 등의 망언들만 쏟아낸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리완용의 환생》, 《라베》(라경원과 아베의 합성어), 《토착왜구》라는 지탄을 받았다.

그런 그가 또다시 《국

은 《국부력》을 약화시켰다는 소리가 갈다고 췌쳐낸 이전 서울시장 오세훈, 2012년 《대선》때 《박근혜대통령만들기》에 앞장섰던 김진래를 비롯하여 《미래통합당》의 많은 후보들이 인민들로부터 락선

《나도 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은 죄로 받은 응당한 대접이고 더 큰 봉변을 눈앞에 둔자들의 비명 소리이다.

본사기자

《나도 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은 죄로 받은 응당한 대접이고 더 큰 봉변을 눈앞에 둔자들의 비명 소리이다.

본사기자

《나도 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은 죄로 받은 응당한 대접이고 더 큰 봉변을 눈앞에 둔자들의 비명 소리이다.

본사기자

《나도 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은 죄로 받은 응당한 대접이고 더 큰 봉변을 눈앞에 둔자들의 비명 소리이다.

본사기자

《나도 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은 죄로 받은 응당한 대접이고 더 큰 봉변을 눈앞에 둔자들의 비명 소리이다.

본사기자